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사실상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본능과 의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평화를 얻고자 하여도 어떤 물질이나 타인에게서 얻으려고 한다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란 오직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름으로서만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화를 얻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강구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매일 아침에 일어나 새롭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행동에 옮김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화를 얻는 방법이 얼마나 쉽고 가까이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슬람은 나는 누구인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인간이면 누구든 궁금해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려줍니다.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의 평화, 자신과 창조주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의미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무슬림이 다른 무슬림을 만났을 때 “앗쌀라무 알라이쿰!(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이라

- 1. 이슬람
- 2. 알라 ALLAH
- 3. 예언자 무함마드
- 4. 꾸란
- 5. 오해와 진실
- 6. 히잡
- 7. 돼지고기와 술
- 8. 삶의 목적
- 9. 예수
- 10. 내세
- 11. 여성억압
- 12. 이슬람의 5기둥



이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jmbooks@hanmail.net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msak.org

chatislamonline.org/ko

blog.naver.com/eunsuya

blog.daum.net/islamforyou

제작: 젠나무민북스(jannahmuminbooks.com) Made by JannahMuminBooks

이슬람

What is Islam?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이슬람은 진리이자 평화입니다.

- 1. 이슬람
- 2. 알라 ALLAH
- 3. 예언자 무함마드
- 4. 꾸란
- 5. 오해와 진실
- 6. 히잡
- 7. 돼지고기와 술
- 8. 삶의 목적
- 9. 예수
- 10. 내세
- 11. 여성억압
- 12. 이슬람의 5기둥

MSAK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Korea

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상대 무슬림은 “와 알라이쿰 썰람(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답합니다. 이슬람의 인사는 인사인 동시에 기도입니다. 이 인사는, 서로 아는 사이든 처음 보는 사이든, 서로의 국적이나 인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언어를 전혀 모른다 해도 단지 “앗쌀라무 알라이쿰”과 “와 알라이쿰 썰람”만 알면 이슬람의 평화의 인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사 하나에도 평화의 의미가 부여되고 실현되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TV에서 보여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슬람”은 세계 인구 4분의 1이 믿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주의 진리이자 아름다운 종교 “이슬람”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종교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진리를 추구하는 누군가에게 이슬람은 가장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으로 다가옴은 창조주의 권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TV에서 보았던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마치 생전 처음 이슬람을 접한 것처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믿는 신과 동일한 신을 숭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슬람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 창시된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는 없습니다.**

그럼 예언자 무함마드는 누구냐고요? 그는 창조주께서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로서 이슬람은 그에 의해 알려진 것뿐입니다. ‘창시자^{創始者}’라는 말은 ‘어떤 사상이나 학설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하거나 내세운 사람’을 뜻하는데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창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거쳐 변질된 창조주의 본래 메시지가 이슬람이라는 ‘완전한’ 형태로 인류에게 ‘최종적’으로 계시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슬람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태초의 인간이자 예언자인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와 같이 ‘오직 한분이신 창조주만을 숭배하라’는 메시지를 인류에 전달한 ‘최후의 예언자’입니다.

이슬람은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서 전 세계 인구의 1/4이 넘는 16억 명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세계 일주를 한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무슬림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슬람이 인종, 국적, 언어, 문화,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창조주의 메시지임이 증명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어떠한 중재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직자나 예언자 또는 그 어떠한 것도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 나 = 직접적인 관계

이슬람을 통해 인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됩니다.

이슬람은 창조주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손님과의 관계, 무슬림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체계화시켜 줍니다. 즉, 이러한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확립시킵니다. 시민권, 결혼법과 이혼법, 상속법, 행동양식,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의복을 입어야 하는지,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전쟁이 허용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경제법, 무역법 등 삶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슬람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 인간을 한없이 자유롭게 하며 이 자유는 평화를 보장합니다. 만약 한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인간은 끝없이 추락하여 결국은 파멸의 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은 진리이자 평화입니다. ●